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형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돌고 도는데 무엇이 자기 접니까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고정됨 없으니 근본에 의지해서 자유롭게 행함이 생활속 공부

스님이 회색승복 입는 까닭

늘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언젠가 스님께서 법문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많고 많은 색상들 중에 왜 회색이면 스님들 입으시는 승복은 회색인지요?

승복의 회색은 중도를 말하죠. 그래서 안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이 혼란된, 회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거죠. 중도가 되기 때문에 중심이 되고 중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먹을 옷은 검지도 않고 회지도 않은 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 해서 방편으로 입는 거죠. 흑백의 분별을 벗어난 근본자리의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서 죽는 방법

저는 대학시절부터 이렇게 고생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아버지와 관계로 인해 전에 스님이 법회에서 아버지를 향해 맞으면서 어떻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대면할 때마다 맞아죽을 바엔 아버지의 손에 내가 죽는 게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기를 스님은 살아서 '내가 죽는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언뜻 떠올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우에 따라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남편도 되는 것과 보는 것, 만나는 것도, 다니는 것도 일정치 않으니 내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다 달라도 그게 다 나 아닌가하는 생각때문에 언뜻 수궁이 가지를 앉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으나 제겐 영연하는 것이 오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거 할 때를 꼬집어서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기에 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일체를 내가 하는 것이요. 또 일체를 내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만날 땐 아들이 되고 아들 만날 땐 아버지가 되고 아내를 만날 땐 남편이 되고 순간 순간 나뉘며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바뀌어 돌아가는데 어떤 때를 꼬집어서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만났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정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든 근본을 의지해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공부의 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길일 것입니다.

24시간 계속 참선 하려면...

저는 이 생이 다하기 전에 꼭 참나를 상봉해야겠다고 발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시간 내서라도 참선을 하고 있는데 참선을 하지 않을 때는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순간도 끊어트리지 않고 참선을 하는 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어떠한 망상이나 슬과 업도 끊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녹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인연들을 실제적으로 녹여나가는 방법을 일러 주십시오.

우리는 24시간 살면서도 항상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고 화해서 돌아 갑니다. 금방 어머니 만났을 때 마음, 친구 만났을 때 마음이 달라지고 또 동생 만났을 때 달라지듯이, 그렇게 화해서 옮겨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없다고 할 수도 없겠구나 또는 내세를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이 꼭 찾지 때문에 그렇게 나두고, 한시도 머무르지 않고 일본 일초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것이지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일본 일초도 떼어놓지 않는 것이, 우리 생활 그대로 자고 깨고 뜯싸고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일초도 떼 놓지 않고 돌아가는 참선입니다.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 그 도리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도 아는 거 모르는 거 동방 믿고 일입해서 놓는다면 거기에서 새색이 나오듯 참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육이 나온 것은 육의 탄생이지 참나의 탄생은 아닙니다. 참나의 탄생을 하려면 그만큼 마음의 근본으로써 참나의 새색이 터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금 씨가 여물어서 그것이 무르익어야만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나무에서 무르익은 그 실과는 온 누리에 같이 맛을 볼 수가 있고 같이 먹을 수가 있고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돈을 내서 사지 않고 이렇게 생명



그림 · 최주현

긴것 짧은것 모두 놓을 때 참나 솟아나 얼키고 설킨 인연줄 마음으로 녹이세요

을 유지하니까 아주 값싸게 생각을 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써 공생·공용·공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공심으로써 공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체로서의 일체 만물이 생기고 만생이 같이 융합해서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내가 왔고, 내가 망했고, 또는 내가 가겠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그 곁집을 벗어날 수가 없고, 숨을 벗어날 수가 없고, 욕심을 떨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도대체 무엇이 자기 겁니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기는 관리인 밖에는 안됩니다. 자기 것이 있을지 모르겠고,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관리인 밖에는 안돼요. 그런데 자기 거라고

하거든요. 자기 거라고 자꾸 고집하니까 돈이 생각을 할 때 "흥! 네 거라고? 좋아하네." 하면서 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 주면 '아! 여기 가면은 관리를 잘하니 내가 가야지' 하셔서 스스로 돈이 들어오는 거지 달아난 돈을 쫓아가고 내 거라고 쫓아간단더 더 한없이 달아나갑니다.

가난도 불을 데가 없는 것이므로 주인 공에다 다 일임해 버린다면 '어어, 내가 이거 정말 원수를 갚으려고 속을 썩일려고 이렇게 나왔더니 셋은듯 부신듯 하니 까 이거 뭐 안되겠어.' 하며 달리 생각을 하고 착한 마음과 더불어 자기도 그 뜻을 알고서 착해진다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상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녹이라는 겁니다. 녹아 녹이라는 거지 끊을 게 어디

있습니까? 망상이 없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으니 망상을 끊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것이고 한마음으로 들리라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너, 두고 보자. 들어오면만 해봐라.' 하고 있어보세. 들어오면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엄중하게 '아! 뭐' 그리고 행복 악을 쓰고 오히려 한을 더 듭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로 본다면, 자기와 같이만 본다면 자비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의리도 나오고, 도의도 나오고, 무중무진하게 자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거기까지 풍겨서 에너지와 같이 여러분이 공생을 하고 공심으로 공명을 하고 있으니 공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고 올이 없이 마음의 향기에너지는 거기까지도 다 밝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오

기도 전에 바깥에서는 '아, 이거 미안한데.' 하구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보! 나 참, 미안했어!" 하구서 이리만 말 한마디를 들을 때 그냥 겨울에 고드름이 녹아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녹아 떨어지게 되죠. 사랑을 주는 거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을 주지만 하면 언젠가는 받게끔 돼있으니까요.

내가 해놓은 거 어디 가겠습니까? 나쁜 일을 해놓아도 내한테 올 것이고 좋은 일을 해놓아도 내한테 올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준다면 자비롭게 의리를 도모하고 참 그렇게 믿는 데에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모두가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고 또 화목하게 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뿐만 아닙니다. 세세생생입니다. 현실에 나쁘고 좋은 게 다 그냥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끊어진다면 별 문제인데, 세세생생에 역경을 거치면서 또 얼키고 설키고 자기 한 대로 그걸 얼키고 설키게 어떻게 끊으렵니까? 물질이란 면에 단번에 끊어버리고 말겠다는, 물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필자 필자한 인연줄, 그 인연줄은 아무 걸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온 거 마음으로 끊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돌이 되니까 녹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왔던 자리로 다시 놓으세요. 나온 자리에 다시 놓는다면 개발이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만법을 응용하게끔 생동력 있게 개발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낙태야 영이 범의 똥타는데

저는 스님께 많은 질타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몇 개월 전에 병든 몸과 마음을 기로 치료하던 곳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여러 우물 증세들로 삶에 의욕이 없고, 마음이 괴로워서 찾아가게 된 곳이었습니. 그런데 기 치료과정 중에 암마가 낙태했던 아이의 영혼이 제게 빙의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과 달리 부정적이고 마음이 어두웠던 것이 그 영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치료와 천도재를 지내면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암마께 말씀드렸더니 너무 강하게 부정해서 그 곳에 다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빙의 되었다는 말도 반신반의합니다. 언젠가 대형스님께서 천도에 관해 법문하신 태일을 들었습니다. 너무 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마치 제게 하신 말씀처럼 따갑게 와 닿았습니다.

제가 스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제게 정말 빙의가 된 것인지와 빙의됐을 때는 어떻게 관해야 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뿌리가 싱싱하면 잎은 절로 푸르르다

믿음은 불가사의한 힘을 갖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완전한 믿음은 그 어려움의 얽힌 실타래를 깨 끊어 풀어 버린다.

믿음은 믿는 만큼 보답한다. 일체를 믿는 이에겐 일체를 주고 절반만 믿는 사람에겐 절반만 준다. 주인공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닦려다 해서 좌절할 것은 아니다. 믿음이 있는 한 어려움을 준 거에서 풀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것. 그러므로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굳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믿음의 크기 만큼 본래 부처로서의 광명이 우리의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게 된다. 그 광명에는 어떤 어둠도 당해 내지 못한다. 온갖 더러움과 욕심, 어리석음이 일시에 사라질 것이다.

"당장 급한데 어떻게 주인공을 믿고 전부 맡기라 하는가?" 하는 말을 하지 말라. 뿌리가 싱싱하면 가지와 잎이 절로 푸르르니 색을 일도 없게 된다.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공덕의 탑을 쌓

고 믿음은 결코 시들지 않는 지혜의 나무를 자라게 한다.

주인공에게 믿고 맡길 때 주인공의 응답이 온다. 뒷전에 물러앉아 있던 주인공이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 주인공은 결코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다.

진실하게 믿고 물러서지 않을 때 비로소 해결하면서, 체험하면서, 감흥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아! 내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단호하게 귀고 들어가 맛을 보고 감흥이 되고 마침내 참 나가 드러나게 된다. 참 나가 드러나 부자 상봉이 이뤄지면 부와 자가 더불어 자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그 자리에 일임하게 되면 왜 모든 일이 잘 풀리는가? 그것은 근본 자리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나라와서 유위의 범을 어루만져 주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때에 따라서 다보 여래가 되기도 하고, 지장보살이 되기도 하며, 관세음 보살·문수 보살·보현 보살이 되기도 한다. 또 신장이 되기도 한다. 주인공은 무엇이든 아니되는 게 없으니 주인공 자라는



본래 공한 것이지만 그러한 표범이 있다. 그러므로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놓는다면 주변이 화락해질 것이다.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 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치라고 굳게 믿었을 때, 에너지는 속사포같이 한철나에 전달이 된다. 또 그런 믿음으로 주인공을 부르면 우주 전체가 한꺼번에 들린다.

주인공밖에 할 수 없다고 믿어 진실로써 맡겨 놓는다면 믿고 맡기는 순간 마치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이 모든 게 밝아진다. 나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사회, 내 국가, 이 세상이 다 밝아지게 되어 있다. 고로 믿고 맡기느냐 않느냐의 한생각에서 천지가 벌어진다. 한생각 잘하면 무량의 밝은 빛을 낼 수 있을 것이고 한생각 잘못하면 무량의 어둠을 뒤집어 쓰게 된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본래로 죄가 없기에 죄 붙을 자리 또한 없으니 한생각 잘못 일으켜 어둠에 빠져 든다는 뜻이다.

한마음 자리에 대한 굳은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다. 우리가 절

어지고 있는 수억겁 년 이래의 업보도 그 행복한 마음 앞에서는 숨처럼 가볍다. 왜냐하면 한마음의 그 무한 광대한 복력에 비추어 볼 때, 중생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온갖 근심과 번뇌와 경계를 한걸 부러 놓는 것과 같다. 믿으면 편안해진다. 나는 본래로 부처라. 죄업에 물들지 않고 인과에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 대광명의 존재임을 알아서 자신의 근본 마음에 귀의한다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놀듯 편안해진다. 나는 진리의 바다를 자재로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게 된다 해도 여전히 없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했다면 생활 속에 어찌 잡다한 불안이나 걱정이 있겠는가.

믿음이 자라면 즐거움이 나오고, 그 즐거움 속에는 죽음이 목전에 닥쳐도 태연자약할 만큼의 진실이 자리잡는다. 생활 속에서 마음의 힘을 체험해 보라. 믿음은 더욱 커질 것이다.

협찬: 주인공